

지자체 소식

■ 강원도, '철원 평화산업단지' 구상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공동 토론회'에 밝힌 철원 평화산업단지 구상은 2000년부터 강원도가 벌여 온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남·북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뜻에서 나왔다. 이 사업은 개성공단 조성과는 반대로, 비무장지대 남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남측 기업이 입주하고 생산 활동에는 북한 주민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사업이 실현되면 북측 주민은 남북통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공단 내 기숙사에서 머물게 된다.

강원도가 구상 중인 계획을 보면 산업단지는 시범단지(10만 평)를 포함, 1단계로 100만 평 규모로 하고 2, 3단계로 최대 400만 평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단계 지역은 친환경 노동집약형 단지로, 나머지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단지 및 지원시설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지는 도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해 일정 기간 업체들에 임대한 뒤 조성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된다. 1단계로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중소기업체 500~1000개를 입주시킨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도는 이미 북측에 사업 의사를 전달해 타진 중이다. 또 작년 9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이 사업을 '남북 경제협력 의제'로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 경남, 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

한강 시민공원에 옛날 천사령 함양군수와 조문수(주) 한국화이바 대표이사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도청에서 함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투자협약서에서는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일원에 30만 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화이바가 향후 3년간 2,2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초저상버스 등의 생

산공장을 건설하고 3,500명 정도의 신규고용 인력을 도내 거주자로 충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한국화이바측에서는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제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시공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며, 함양군은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투자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화이바의 첨단 초저상버스 생산공장과 관련업체 등 5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매출액 5,000억원과 3,5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축되었던 투자분위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화이바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 첨단 복합소재의 원료에서부터 조선용 기자재, 항공기·열차·자동차의 동체 및 부품, 초저상버스 및 굴절버스를 개발하는 지역 굴지의 복합재료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미 함양군 원평리 일원에 약 4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총 투자금액 524억원, 연 매출액 1,000억원, 고용인원 350명을 목표로 '05년 9월부터 상·하수용 복합유리섬유관을 생산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06년 7~8월경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와 이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에 이어 대략 '07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 일하는 방식 혁신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56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일하는 방식 혁신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고객만족 행정구현,

문서작성의 간소화 등 6대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 과제 추진실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혁신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의근 도시사의 혁신의지, 혁신과제 선정 및 실천계획 수립, 과제실행 우수사례와 추진성과, 과제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지금까지 사고·행태·정책혁신을 3대 도정혁신 기본원칙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전직원 혁신교육, 혁신 선도자치단체 선정 등 한발 앞선 도정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5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토론회, 워크숍, 전직원 참여형 혁신교육 등 발굴원을 다양화하여 혁신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집중근무제 시행, 회의문화 개선, 멘토링제 시행, 도민접점 현장행정 추진, 지식정보공유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도정혁신 139題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모범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혁신과제 추진 마일리지 확대 시행으로 자발적인 상시혁신을 유도하고 도정혁신 139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퇴출업무 재발방지를 위하여 도정혁신 과제관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추진과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광주시,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광주시는 광주의 대표기업인 기아자동차(주), 대우일렉트로닉스(주), 삼성광주전자(주) 등 3社の 환경기술인과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등 환경공학과 교수가 대기업 협력업체(170개社)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광주시 환경공무원들이 환경행정 업무를 후견하는 '환경관리후견인제'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3일간) 이

들 협력업체를 현장방문하여 환경기술이 미흡하거나 환경관련시설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 규모로서 환경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시설가동 중단으로 대기업 및 관련사업장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제품생산 차질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후견인은 △ 환경오염 저감기술 지원으로 친환경적 사업장 관리, △ 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용자알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등 행정서류 안내·제공 및 대행, △ 환경법령의 제(개)정, 환경신기술 등 환경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의 환경시설 관리를 이들 후견인들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기업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대학교수 3인, 대기업 환경기술인 3인, 환경담당 공무원 3인 등 9인을 협력업체들의 환경관리 업무를 후견하는 '광주광역시 환경관리후견인'으로 위촉하여 작년 상반기(6월) 추진한 결과 60개 사업장에 72건의 환경기술 지원, 환경정보 제공 및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사업장 관리운영' 책자를 배부한 바 있다.

■ 부산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서 수립된 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가져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계획의 구체화와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

지자체 소식

한 관계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관계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화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및 시장인사말을 시작으로, 부산발전연구원 김영삼 원장의 구상발표와 지정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정토론은 김성국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백운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박인호 부산경제가꾸기 상임의장(시민사회분야), 윤철현 동아대 교수(도시계획분야), 이정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경제산업분야), 추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항만), 한계섭 동명정보대 교수(유비쿼터스 산업)가 참여하여 토론을 전개했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부산의 도시비전 실현할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국가남부권 경제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거점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낙동강벨트, 내륙벨트, 해양벨트를 3개축으로 하여 서부산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문화도시프로젝트, 도시재창조프로젝트, U-CITY프로젝트, 동부산프로젝트 등 7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규모 개발로 인한 소외계층의 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효과를 위해 문화, 복지 등 10대분야별 계획을 추진하고, 월드이벤트로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 개최,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 개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은 시민토론회에 제기된 내용에 대한 보완 수정을 거쳐 작년 연말에 확정했으며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시 발표될 예정이다.

■ 울산시,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적합'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중 회야 등 정수장별로 미생물, 유해영양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양물질 등 5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매우 적합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결과를 보면 미생물의 경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모두 불검출로, 유해영양 무기물질의 경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보론 등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물질인 농약류(4개 항목), 휘발성유기물질(12개 항목) 등 16개 항목은 불검출로,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8개 항목은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이다.

이와 함께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세제, 망간, 아연, 동, 철, 알루미늄 등은 불검출, 적합, 기준치이하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는 이에 따라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도물은 공급과정에서 지역별로 몇 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에 필수 영양물질인 철, 아연 등은 유해 무기물질이 아니라, 심미적 영양물질로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탁도는 0.5NTU 이하로 맑고 깨끗하다.

■ 인천시, 도시녹화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에서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산림청에서 주관 평가하는 2005년도 도시녹지관리사업 평가에서 6대 광역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에서 추진되어온 학교숲조성, 담장허물고 나무심


기, 공원조성, 등산로정비, 수목원, 도시생태 숲 조성 등 Green Incheon만들기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여 녹색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살기 좋은 인천만들기에 주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번 평가항목으로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도시녹지 관리기반 구축실태, 도시녹지 사업예산 실태, 도시녹지 조성·관리·활용 실태, 도시녹지조성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현황, 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노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 받았으나 다른 광역시 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올해에도 수목원과 생태숲 조성, 그리고 각종산림사업을 추진 할 것이며 특히 인천의 전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자연 친화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대전시, 자원정보시스템 운영한다.

대전광역시는(시장 염홍철) 2005년부터 '토공정보시스템'을 운영해 108개 공사장의 토공정보를 공유해 23개

현장에서 76,256㎡의 토량을 상호 활용해 효율적인 자원이용은 물론 3억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토공정보시스템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해 현장에서 버리거나 필요한 '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수요와 공급체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대전시는 지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공의 활용시기, 흙의 성분 등이 다소 일치하지 않아 좀더 많은 흙을 활용치 못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등 민간부분의 정보내용도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자재 등 활용 가능한 각종 자원도 정보 제공 채널이 있다면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운영중인 토공정보시스템에 건설자재, 장비·기구, 기타재산 등의 정보를 Upgrade한 '자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원정보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방법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국별 홈페이지 클릭하여 감사관 홈페이지 토공정보제공시스템 배너를 이용하면 흙·자원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월간 '환경기술인」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지로용지 납부 가능)
- 구 독 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